



**Pilgrimage of Trust and Reconciliation
East Asian Meeting of Young Adults**

**떼제-화해와 신뢰의 순례
동아시아 젊은이 모임**

떼제공동체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떼제는 매년 전세계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마을 이름을 따라 떼제공동체라 불리는 에큐메니칼 국제 수도공동체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매주 열리는 젊은이 모임에는 여러 개신교회와 가톨릭, 정교회 신자뿐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참석합니다.

떼제공동체는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회원을 모집하지도 않고 어떤 '운동'도 조직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각자 자기가 사는 가정과 지역, 교회와 학교,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와 신뢰를 간직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신뢰의 순례» 모임을 개최합니다.

떼제는 짧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과 긴 침묵이 있는 묵상적인 기도(예배)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떼제와 한국

1980년대부터 떼제의 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서울 화곡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 심화를 돕는 한편, 교도소 사목(사역)과 교육 예술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형제들은 숨어 있는 존재로서 남북한의 화해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편, 프랑스 떼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떼제의 묵상 기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동아시아 젊은이 모임

바쁜 일상에서 떠나 조용한 산기슭, 자연 속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하나

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나가는 시간,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한 모임입니다.

다양한 교회와 단체, 지역에서 모인 청년들이 며칠동안 함께 지내면서 외국 친구들을 맞이하여 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성찰과 대화를 통해 고민과 희망을 서로 나누고 더 깊고 넓은 안목으로 자신과 사회를 보는 것을 배웁니다.

대전 모임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정전 60년이 되는 올해, 최근 동아시아 나라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립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향한 모두의 염원을 표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젊은이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연대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항

■ **날짜:** 10월 2일(수) 저녁-6일(일) 아침 (10월 2일 오후에 도착, 저녁 기도로 시작합니다.)

■ **장소:**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관

■ **참가 대상:** 만 18-35 세.

■ **참가비:** 학생 10만원, 직장인 혹은 30세이상 13만원 (형편이 되는 사람은 회비를 다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더 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프랑스 떼제의 한 주간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하루 세 차례 떼제 노래와 침묵을 곁들인 공동 기도, 성경묵상 및 소그룹 대화, 영성적 혹은 사회적 주제의 여러 워크샵, 성가 연습 (찬양).

일반적인 청년 프로그램처럼 아주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천천히 내면을 응시하고 서로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 일정표

8시 아침 기도

9시 아침 식사

10시 성경 묵상 및 소그룹 대화

12시 20분 낮기도

오후 1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성가 연습 (찬양)

오후 3시 15분 워크샵

오후 5시 다과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30분 저녁기도 (금요일 십자가 주위의 기도, 토요일 부활 경축 촛불 기도)

(10월 6일 주일 : 이른 아침 식사 후 출발 혹은 대전 지역 교회의 주일 예배나 미사 참석)

- **워크샵 주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소비 생활, 환경, 공정 경제 등등)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마음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분리와 분열을 넘어" (다문화 사이에 다리 놓기, 화해)

"하느님(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응답하기"
"떼제의 노래와 음악" (떼제의 기도 준비하고 진행하기)
"공동체로 살아가기" (대안 사회 모색, 사례와)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이들" (순교 성지 순례)

- 국제 친선의 축제 (토요일 오후) : 각 나라별로 준비해서 노래와 춤, 장기자랑

- 나라별 지역별 모임

기도는 모두 떼제의 노래와 성경, 침묵의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 및 낮 기도는 30-40 분 정도. 저녁 기도는 1 시간 정도이며, 저녁기도 이후에 원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떼제의 수사나 이번 모임을 동반하는 사제, 목사, 수녀 몇 분이 기도처 구석구석에서 젊은이들의 얘기를 경청합니다.

이 모임은 평온하지만 즐거운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젊은이 모임과 피정의 혼합 형식이지만, 여유 있게 진행이 되어 시간도 넉넉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강의는 최소한이고, 주로 소그룹과 주제별 대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국제 모임이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모두 다 사용합니다. 공동 기도는 최소 4 개국어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구절과 기도문이 모두 짧고 떼제의 노래와 침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임과 소그룹에서 필요에 따라 통역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언어별로 나누기 보다는 가능하면 최소 2-3 개국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참가자 수와 경우에 따라 한국어만을 쓰는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참가 신청 : 6 월 15 일부터 9 월 5 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 (3 백명). 외국 신청자 수에 따라 한국인 허용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 www.taize-korea.kr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단체나 교회별로 서너 명씩 혹은 10 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참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청년이나 외국의 자매 결연 교회나 단체를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모임 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있습니다.